

## 미래창조과학부

● 글\_김명환·대한수학회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수리과학부 교수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난방기 순차정지운전으로 연구실과 실험실에 거주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체감 추위는 그 어느 해보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5년 전에 교육부로 흡수·통합되었던 과학기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전의 과학기술부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조직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합집산하며 바뀌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라는 큰 틀에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최근의 성명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연구 지원을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한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연구를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며, 기초연구가 응용·개발 연구의 토대가 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초연구와 산업원천기술이 학제 간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담부처, 즉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연구가 산업원천기술이나 성장동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한 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범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서는 한술 더 떠서 법



의 명칭에 아예 과학과 비즈니스를 벨트로 묶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특히 기초과학연구가 원천기술의 토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기술개발이 기초연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와 원천기술개발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기초과학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초연구와 기술개발 사이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차(time gap)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기초연구를 산업기술과 연계시킨다는 구도 하에서는 연구지원기관들이 그 시간차를 인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연구의 본질은 자유로운 탐구에 있으며, 자유롭지 않으면 창조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하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출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희망의 열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